

대학생들의 기후위기 관심도 및 기후정책 연구조사

김아현, 강유하, 노경배, 박서영, 김가을
[대학생 싱크탱크]

1. 서론

대학생기후행동은 2023년 100여개 대학의 1,048명의 대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7%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 에너지, 교통 등 시급하게 바뀌어야 하는 분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설문을 기반으로 <대학생 싱크탱크> 팀을 구성하여 7개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 전북, 제주) 대학생들의 기후위기 인식조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본 설문을 기반으로 정책 제안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다.

2023년부터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두 차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인식순위는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2023년	2024년
1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56.3%)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51.2%)
2위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 (55.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51.1%)
3위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41.0%)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42.5%)

위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잦은 이상기후와 기후재난, 그로 인한 피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며 원전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 재해·병충해 R&D 예산 축소, 신규 댐 추진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모임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었다. 기후위기가 닥쳐오는 현실 속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와 정책제안을 위해 주변 지인/지인 소개를 통해 FGI/DI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2.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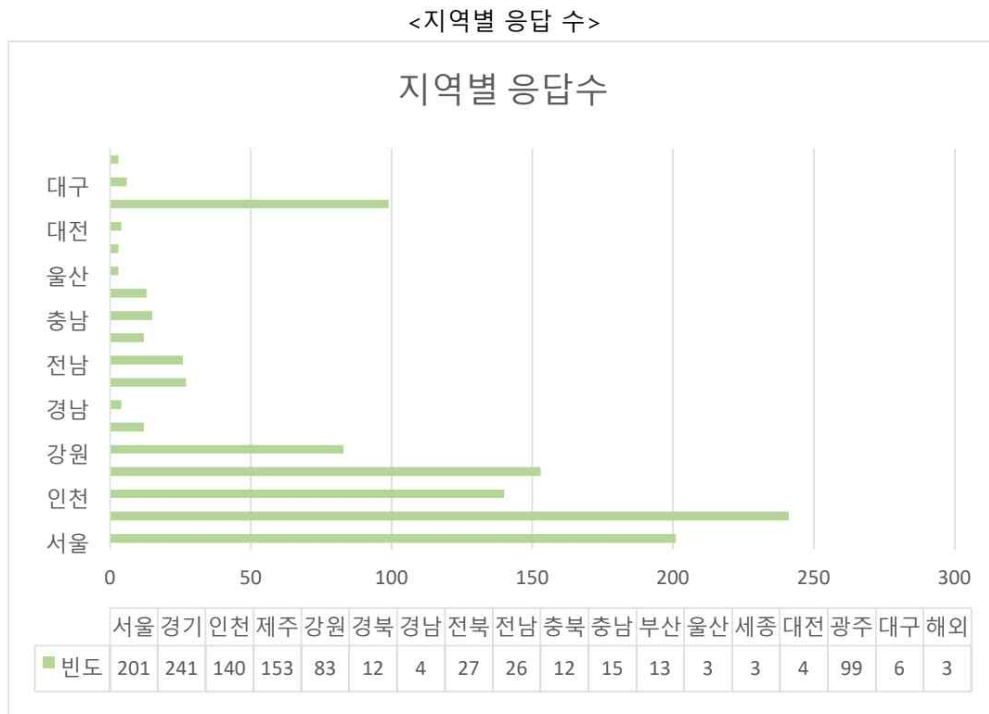
세계기상기구(WMO)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5℃ 상승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홍수와 같은 재난이 많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산업통상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 무역 규제 등의 이슈가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며 기후위기 문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기후위기를 비롯한 여러 과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우리의 선택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후위기를 대응해 나갈 정치인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2023년 대학생기후행동에서 진행한 <기후위기와 기후정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 97%

대학생들이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총 응답자 수는 1,048명으로 120개 대학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설문조사로 파악되었다. 대학생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계기는 '이상기후 현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디어와 물가 상승&을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다.

사람들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외에도 관찰된다. 2024년 2월 '기후정치바람'에서 발표한 <2024 기후총선 의미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17,000명)에서 총선 후보 공약 중 가장 관심이 큰 분야 5위로 '기후위기 대응'이 선정되었다. 심지어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정당에 대해 5명 중 3명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투표를 고민했다는 것에서 기후위기 문제는 세대로 막론하고 중요한 의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기후위기와 기후정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심층 분석



[표1] 기후위기와 기후정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지역별 응답수

2023년 진행된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를 통해 진행되었다. 대학생기후행동이 소속된 7개지역 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여 다양한 지역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다.

위 사람들 중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39명이고,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63명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97%였다.

매우 심각함	심각한 편임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관심 없음
51.8%	44.5%	2.48%	0.38%	0.86%

[표2] 전체 응답자 수에 대하여 %로 표현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후 위기를 실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상기후	661명	미디어의 영향	246명
식자재 가격 인상	95명	없음 또는 모르겠음	11명

[표3] 기후 위기를 실감하게 된 계기

설문조사 전반은 2024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할 22대 국회에게 어떤 것을 대학생들이 요구해야 할지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기업이라고 응답하였지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이끌어내는 기업에서부터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할지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규제를 통해 모든 부분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후위기로 인해 노동의 어떤 측면에서 위협받는지 묻는 질문에서 노동환경 전반이라고 응답한 것은 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 산업사회는 기술과 정보, 혁신과 창의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지만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며 숙련도를 쌓아 가면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동일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함에도 성별, 연령, 정규직 여부 등에 따른 임금차별이 발생한다.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함에도 종사하는 일자리 형태에 의해 부당한 임금 차별을 받으면 노동력 공급-수요의 대규모 미스매칭이 발생해 기술과 산업, 직업의 변화에 노동시장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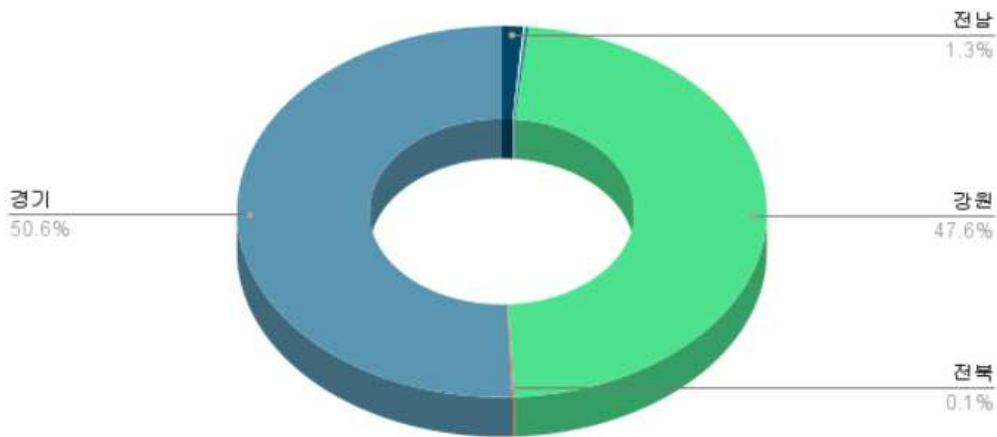
이런 문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벌써 산업현장의 일자리 전환이 논의 중이지만 호봉제적 임금체계 아래에서는 일자리 전환이 엄청난 저항과 갈등, 희생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2) 대학생 기후우울증 실태조사

기후우울증이란 기후위기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국가와 인류에게도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기후위기 상황을 보며 느끼는 불안, 스트레스, 분노, 무력감을 포괄하는 말로, 2017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의한 우울장애의 일종이다. 기후우울증은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 하나며 WHO가 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대학생기후행동은 <기후위기와 기후정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을 통해 대학생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그들의 기후우울증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총 928명이 응답했고, 6개 지역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지역별 응답수



<도표2. 기후우울증 실태조사 지역별 응답수>

설문 결과 응답자 대다수의 대학생이 심각한 정도의 기후 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아직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 및 해결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12%는 기후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응답하였고, 기후우울증은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문제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가 질문지의 문항 구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후속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3) '대학생이 바라는 사회' 인터뷰 연구

본 연구모임은 <기후위기와 기후정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 개선/공공 에너지 실현/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기후우울증 실태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및 해결에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모임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바라는 사회의 구체적인 상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대한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은 노동/에너지/교통/대학 부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대응이 실현된, 문제가 해결된 사회의 모습을 묻는 내용이었다. 총 5명의 대학생 심층 인터뷰하였다. 우선 노동부문에서는 실내보다 실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또한 어업과 농업 종사자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 이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화석 및 핵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동시에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통 부문에서는 대중교통의 발전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대중교통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일회용 쓰레기 문제가 언급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진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는 질문에는 노동 감소가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들은 노동이 줄어들고, 에너지 사용도 줄어들며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대학 내 쓰레기가 줄어들고 비건지향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3. 결론

이번 연구는 대학생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의견을 깊이 탐구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

학생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기업의 대량 생산과 소비를 지적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는 정부라고 응답해, 정책적 규제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노동 시장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안전한 노동 환경과 지속 가능한 직업 전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특히 실외 노동자와 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 보장 및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화석 및 핵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연구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의 발전과 생활 속의 쓰레기 문제 해결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제언

1. **정책적 규제 강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규제를 통해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 실외 근로자와 농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책을 확대하여 기후위기에 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에너지 전환 가속화:** 화석 연료와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원에 대한 연구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4. **대중교통 강화 및 폐기물 문제 해결:** 대중교통 확대와 쓰레기 배출 관리 정책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청년을 위한 기후우울증 안전망 구축:** 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을 위해 심리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신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대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책적,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폭염이 북해만큼 무섭다...“기후, 한국 가장 큰 위협” 1위 [한국 안보, 국민에 묻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744> (2024.10.8.)

녹색전환연구소, 202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전국 보고서, <http://www.igt.or.kr/view/644>, (2024.02.19.)

5년 내 지구 기온 &1.5도& 돌파 가능성 ↑...WMO &암울한 현실&,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1309>

기후위기 노동시장 변화, 노동자도 변해야 한다, 전기저널,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131>(2021.07.07)